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네트워크 형성

무주군, 장애인태권도협회와 협약  
상호 협력·태권도 보급 등 연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탄력'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총력을 쏟고 있는 무주군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손을 맞잡고 설립을 위한 가속도를 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윤용철 부회장은 12일 오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글로벌 태권도 인재 발굴 육성 등 각종 사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무주군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정진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추진위원장, 이도우 무주군태권도협회장, 문형중 행정복지국장, 김정미 문화체육관광 등이 참석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측은 윤용철 부회장, 김태갑 전무이사, 안대섭 전문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은 이사 등이 함께했다.

이로써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등 국내·외 굵직한 태권도 단체들과의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태권도 단체와 '일 팀'이 되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 설립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협약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상호 적극 협력 지원하고 장애인 태권도 보급·진흥·홍보에 관한 연계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 양 기관의 발전 및 우호증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라며 "오늘 국내 태권도 권위가 있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큰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윤용철 부회장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태권도계가 힘을 모아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제공하는 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2009년 창립)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벨로드롬경기장 내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태권도 진흥과 재활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국제 대회 및 올림픽 유치 실현 등 태권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제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제안서 제출 등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담아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황인홍 무주군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윤용철 부회장은 12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글로벌 태권도 인재 발굴 육성 등 각종 사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선거 단독 입후보

### WT 선관위, 최종 후보자 명단 발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차기 총재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WT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자격 심사를 끝내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재 1명, 집행위원 17명, 감사 1명을 뽑는

WT 집행부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진다.

WT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올해 10월 중국 우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하고 대회 개막 전날 열릴 예정이던 선거는 화상 전자 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WT 선관위에 따르면 총재직에는 조정원 현 WT 총재가 단독 출마했다.

2004년 고(故) 김운용 전 총재의 뒤를 이어



총재에 취임한 조 총재는 진여 임기 10개월을 수행한 뒤 2005년, 2009년, 2013년, 2017년 차례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단독 입후보한 조 총재는 사실상 2025년 까지 세계연맹 수장을 맡게 됐다.

집행위원직에는 총 44명, 감사직에는 2명이 입후보했으며 집행위원직 40명, 감사직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뉴시스

## 국기 태권도 진흥·보급 '맞손'

태권도진흥재단, 강원체육회와 체육발전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와 국기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2일 강원도 체육회관(강원도 춘천 소재)에서 이루어진 업무협약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김상만 인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상호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지원 협력 등을 담은 협약을 교환했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춘천시는 별도의 태권도 관련 조직도 갖추고 있는 등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는 태권도 발전에 관심이 크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강원도에 대한 지원을 더 고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강원도 체육회와 각 시군 체육회에서는 태권도와 태권도원 관련 홍보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내 태권도



장을 비롯해 전국 태권도장과 지도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태권도원을 찾아 워크숍 등을 제안하며 태권도원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강원도 체육 및 태권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재단도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이근우·백영복, 도쿄패럴림픽 출전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이근우, 백영복 선수가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이근우(TT6등급), 백영복(TT3등급) 선수는 오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패럴림픽에 출전,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두 선수는 도쿄 패럴림픽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참가해 기량을 다지며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임했다.

이근우 선수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으며, 2018년 전국체전에서는 3관왕을 차지한 실력자로, 지난 2016 리우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패럴림픽 출전이다. 백영복 선수는 2019년 중국 오픈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고, 201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단식 2위, 복식 2위를

차지한 떠오르는 신예다.

이 선수는 "두 번째 패럴림픽 출전인 만큼 후회없는 경기 펼치고 오겠다"고 말했으며, 백영복 선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영수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메달획득과 상관이 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군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패럴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한다면 아시아 및 세계에 장수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지는 곳 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수=교만호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